

제3의 경제체제: 헨리 조지의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

전강수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구 한국 헨리조지협회) 회장

I 머리말

북한이 김일성의 사망 이후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식량 위기에 빠져들면서 꿈에서나 그려보던 통일이 갑자기 실현 가능한 현실로서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북한은 머지않아 붕괴할 것처럼 보였다. 반면에 남한은 오랜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지속해왔고 1990년대에 와서는 마침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미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서 자본주의의 세계사적 ‘승리’를 확인한 바 있던 우리는 북한의 체제적 위기와 남한의 성공에서 자본주의의 민족사적 승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붕괴와 그에 이은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우리 안에도 체제적 위기의 싹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사회주의의 붕괴가 자본주의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도 말이다. 그러다가 우리는 외채 위기를 맞이하고 소위 IMF 체제로 전환하면서 갑자기 우리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OECD 가입을 자랑하고 멕시코의 외채 위기를 조롱하던 우리가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걱정하면서 멕시코의 위기 극복 과정을 부러워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가 주기적으로 불황을 겪는다는 것, 그것의 영향이 참으로 파괴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위기를 보면서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통일이라고 하면 남한 자본주의로의 통합을 생각하던 우리에게 작금의 사태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통일이란 단순히 체제적 우월성을 입증한 남한 자본주의로 북한을 통합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동시에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의 과정이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통일 한국의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면서 양 체제의 문제를 극복한-또 양 체제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제3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세스(Ludwig von Mises)같은 사람은 일찍부터 “제3의 체제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혼합경제나 복지국가, 혹은 시장 사회주의 등, 제3의 길을 표방한 체제나 정책들은 대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 체제의 문제를 극복한-또 양 체제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제3의 경제체제는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제3의 길이 실패한 것은 그것들이 잘못된 절충이었음을 나타낼 뿐 제3의 경제체제의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이미 120여 년 전에 그러한 체제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그가 말하는 제3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자본주의하의 빈곤과 불황이 해결되고 사회주의 하의 비효율과 부정·부패가 사라진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사회주의의 평등이라는 이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헨리 조지의 구상은 이와 같이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학 이론이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서 배척 당하고 잊혀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멀어져 버렸다. 그러나 사회를 자본주의의 모순으로부터 해방하겠다고 나섰던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자본주의 또한 그 고유한 모순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실패상을 노정하며 절뚝거리고 있는 지금, 헨리 조지의 구상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

다. 통일 한국의 경제 체제를 모색해야 하는 우리가 이와 같은 헨리 조지의 구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헨리 조지는 경제 문제의 기본 원인으로서 특히 토지에 주목한다. 그런데 토지 문제는 지금까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여 왔을 뿐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헨리 조지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통일 한국의 경제 체제를 위한 사상적 기초로서 헨리 조지의 구상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조지의 시각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각각 밝히고, 제3의 경제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이때 그 제3의 체제가 과연 기존 양 체제의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양 체제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사회를 중상주의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사회를 자본주의의 모순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와 실패는 그들의 해방이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헨리 조지에게서 '새로운 해방'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래서 이미 120년이나 되어 남아버렸어야 할 그의 경제학을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이라 부르는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는 남북한의 실태를 상세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통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기본 시각의 정립을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논의도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3의 경제체제 등과 같은 보편적 범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여기서 청립되는 기본 시각에 입각하여 진행되는 구체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것은 추후의 과제로 미루어 둔다.

II. 자본주의와 토지 사유

1. 자본주의하의 토지사유제의 해악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고 근로 대중을 착취로부터 해방하겠다는 사회주의 계

제가 자본주의의 면전에서 여지없이 붕괴하였다. 역사는 해방자 사회주의를 패배자로 선언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반면 자본주의는 구 사회주의의 권에 급속히 과급되면서 마침내 전 지구를 뒤덮기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체제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후쿠야마와 같은 사람은 사회주의의 붕괴가 '역사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의 승리를 선언하였다.¹⁾ 사회주의의 붕괴를 바로 역사의 종언으로서의 자본주의의 승리로 연결시키는 이 같은 주장은 우파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기존의 많은 좌파 지식인들을 포함하는 세계 지성계와 일반 대중의 생각을 사로잡기에 이른 것 같다.

그러나 승리한 자본주의의 현실은 어떠한가?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 만도 3,000만 명 이상이 실직 상태에 있으며, 제3세계 대도시의 거리에는 수억 명이 일자리를 구하여 떠돌아다니고 있다. 일자리를 갖고서 월급 봉투를 집에 갖고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늘 갖고 살고 있다. 기업가들이라고 더 나은 형편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자신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불황의 압박 아래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일은 독일과 일본과 같은 기적의 경제에서나 영국과 같은 저생산성 국가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²⁾ 주지하다시피 산업혁명은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자본주의를 확립시켰다. 그 이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그에 따라 자본주의 내의 물질적 부는 가속적으로 증식되어 왔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빈곤과 경제적 지위의 불안정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 요컨대 자본주의는 승전가만 부르고 있을 입장이 아닌 것 같다. 만성적 실업과 파괴적인 경기 변동을 해결할 수 없다면, 자본주의도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실패라는 역사적 평가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세기 전반에 등장한 복지국가(welfare state) 정책은 자본주의의 체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목적으로 채택된 유력한 대안이었다. 그것은 무거운 소득세 징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시하여 빈곤층의 불만을 무마하고, 조세와 정부 지출을 조작하여 경기변동을 조절하고자 한 것이었다. 자본주의가 노골적인 강제력의 사용에

1) 이종, "통일과 토지: 제3의 중도체제는 있다", 『제6회 성경적 토지학교 자료집』, 1997, pp. 84-5.

2) Fred Harrison, *The Power in the Land*, New York: Universe Books, 1963, pp. 11-2.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실업과 경기 변동은 억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막대한 재정 적자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그로 인한 사회적 긴장은 높아졌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점증하는 조세 부담을 감당해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의존은 가난과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를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정책은 부패한 구조를 지속시키고, 자연적 조정이나 진정한 개혁이 작동하는 것을 방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제학은 자본주의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애쓰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미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위기에 자본주의의 수정으로 대응하려 했던 케인즈나, 더 나아가 자본주의를 부정함으로써 그 문제를 극복하려 했던 마르크스나 모두 잘못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둘은 모두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를 찾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의 처방이 잘못이었음이 드러난 이상 우리는 이들의 문제 인식 또한 잘못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케인즈에 앞서서, 그리고 마르크스와는 같은 시대에 자본주의의 체제적 결함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한 헨리 조지라는 뛰어난 경제학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이론에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는 120년 전에 이미 물질적 진보에 빈곤이 수반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 법칙을 해명하였으며, 실업과 불황의 원인을 명쾌하게 밝혔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하의 빈곤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토지 사유-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독점-의 존재와 지주에 의한 지대의 전유에 기인한다. 또 자본주의하의 불황은 근본적으로 토지 투기(=지대의 투기적 상승)에 기인한다.

여기서 토지 사유가 자본주의하에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헨리 조지와 그의 추종자들, 즉 소위 조지스트들의 논지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첫째, 토지 사유는 진보 속의 빈곤을 초래한다. 물질적 진보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필연적으로 지대를 상승시킨다. 그런데 토지 사유제하에서는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가 지대를 차지하므로 노동과 자본은 진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인구 증가, 기술 진보, 토지 투기가 어떻게 지대를 상승시키고 임금과 이자를 상대적으로 또는 심지어 절대적으로 저하시키는 지 상세하게 밝혔다.³⁾ 그의 논의에서 임금과 이자의 상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

다는 점은 문제점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진보 속의 빈곤의 원인은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된다.

둘째, 토지 사유를 근거로 한 토지 투기는 주기적으로 불황을 야기한다. 헨리 조지에 의하면, 토지 투기가 토지 가치를 현재의 생산 조건하에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최저 수준의 대가조차 지불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시키면, 특정 토지의 유희와 함께 관련 분야의 생산 중단을 야기한다. 한 분야의 생산 중단은 다른 부문에 대한 수요 감소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른 부문에서도 생산이 감퇴한다. 이와 같은 마비 현상이 공업과 상업의 조직망을 따라 확산되는 결과가 바로 불황이다.

셋째, 토지 투기는 도시를 황폐하게 하며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 도심지에서의 토지 투기는 중심가의 확장을 방해하며 건물들을 황폐화시키고 마침내 그 근방을 슬럼으로 변화시킨다. 그것은 또한 개발업자들을 지가가 비교적 싼 외곽지대로 밀어냄으로써 스프롤(sprawl) 현상을 낳는다. 투기적 목적으로 인한 토지의 유희화는 현재 온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환경 파괴를 초래하였다. 브라질 아마존 강우림의 급속한 파괴는 바로 토지 투기로 인한 토지의 인위적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주에 의한 것이었다.

프레드 해리슨(Fred Harrison)은 자본주의하의 토지 사유의 해악을 엔진의 작동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요약해 주고 있다.

지대는 엔진 오일의 기능을 한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체제 내부에 적절하게 배치된다면 작업 환경, 즉 삶의 공적 영역을 매끄럽게 하는 액체이다. 그래서 지대는 그 사회적 성격에 의해 특정 지워진다. 그것은 특정 노동자나 특정 자본 설비에 의해 창출되지 않은 소득이다. 그것은 공동체와 자연의 결합의 산물이다.

이제 우리가 근대의 토지 시장 내에 조성되어 온 결합을 우리의 분석 가운데 포함시킨다면 경제의 주기적인 파국의 그럴 듯한 이유는 분명해진다. 산업 사회에서는 지대가 금융 개스킷(financial gaskets)을 통하여 유출된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소득 흐름은 조화로운 상태에 있지 않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엔진 오일은 시장의 몇몇 부문에서 말라 버리고 과열이 발생하며 마침내 엔진이 멈추게 된다. 우리는 놀라서 자동차 정비공에게 호소한다. 그들은 당황해서 머리를 긁고 우리는 작동해야 할 부분들을 무모하게 두드린다. 마침내 예기치 않게 무슨 일-우리는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이 일어나서 엔진이

3) 자세한 것은 Henry George 저, 김윤상 역, op. cit., 제4권 참조.

갑자기 소리를 내며 작동한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음 번에 엔진이 멈출 때까지 계속 운전한다. 이것이 이백 년 동안 사람들을 망쳐 온 스탑-고(Stop-Go)의 주기적 행진이다.⁴⁾

2 토지사유제에 대한 존 로크(John Locke)와 아담 스미스의 입장

자본주의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시장경제와 함께 사유재산제도를 떠올린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 사유도 자본주의의 필수적인 특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주에 의한 지대 전유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투기와 그로 인한 빈곤, 실업, 불황이 심각해질 때마다 토지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가지면서도, 그 모든 경제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토지 사유에 있다는 생각은 감히 갖지 못한다. 토지 사유는 자본주의에서 신성불가침의 원칙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철학적·경제학적으로 토지 사유는 자본주의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이 점은 자본주의의 철학적·경제학적 기초를 놓은 존 로크와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도 기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이다. 사실 두 사람은 토지 사유를 인정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 내에는 토지 사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요소가 들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로크는 노동과 토지의 결합이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는 것처럼 토지에 대한 일종의 권리를 확립할 것이라고 하여 토지 사유를 인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주장에 하나의 조건을 첨부하였다. 그것은 종종 '로크의 단서'(Lockean Proviso)라고 일컬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일한 정도로 좋은 토지가 충분히 남아 있을" 때에만 토지 사유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적 용어로는 "토지가 시장 가치를 갖지 않는 한"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로크는 토지가 시장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에 토지 사유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을 공동으로 주셨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놓았고, 동시에 토지 사유

4) Fred Harrison, "The Georgist Paradigm", in Mason Gaffney & Fred Harrison eds., *The Corruption of Economics*, London: Shephard-Walwyn, 1994, pp. 174-5.

에 정당한 근거를 부여했다고 평가되는 로크는 -그 자신이 그 단서의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렇게 토지 사유를 부정하는 논리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아담 스미스도 비록 토지 사유와 지주들의 이해를 옹호하기는 했지만, 지대가 유한한 자원-토지-의 사용에 대한 독점 가격이라는 것과, 지주들은 “세 계급 중 그 수입이 그들 자신의 노동이나 염려는 전혀 들이지 않고, 마치 저절로, 그리고 그들 자신의 계획이나 구상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유일한 계급”⁵⁾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나아가 물질적 진보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토지의 실질 지대를 상승시키고, 지주의 실질 부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⁶⁾고까지 주장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헨리 조지는 토지 사유를 실질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토지가치세를 제창한 바 있다. 공공의 것을 공적으로 징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인데, 스미스는 헨리 조지 이전에 이미 이 토지가치세의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즉 그는 토지 가치에 부과하는 조세가 경제 잉여에 귀착되고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노동자의 노력과 자본가의 기업심을 결코 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토지 가치는 자본 가치에 비해 은폐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미스는 자연적 정의에 입각한 경쟁을 이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 자연적 정의의 개념은 기회의 균등 혹은 페어 플레이와 같은 개념을 포함한다. 즉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상태이다. 그는 바로 이 개념에 입각하여 중상주의적 규제와 독점을 그렇게도 격렬하게 비난했던 것이다. 토지 사유가 페어 플레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3. 토지사유제 확립의 과정: 경제사와 이론사의 개관

자본주의의 철학적·이론적 기초를 놓았던 존 로크와 아담 스미스의 견해가 이상

5)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pp. 276-7(Fred Harrison, op. cit., p.27에서 재인용).

6) *Ibid.*, p. 275.

과 같을진대, 어떻게 하여 토지 사유가 자본주의의 불가결한 요소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을까? 아래에서는 서구의 경제사와 이론사를 개관함으로써 그 이유를 밝혀 보기로 하자.

헨리 조지에 의하면, 토지 사유제는 인류 역사상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토지를 부당하게 탈취한 곳이 아니면 성장하지 않았다. 어디서나 기본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은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였다.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정되고 토지 사유제가 발달한 경우에 그것은 그 문명을 멸망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의 공적 기능들을 위한 경비는 전통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대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조달되었다.

봉건제를 보면 일면에서는 토지의 절대 소유권이라는 관념이 통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로마를 정복한 야만족이 피정복민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봉건제는 그것을 능가하는 상위 권리를 설정하였다. 즉 봉건제 확립 과정에서 개별 소유권은 사회 내지 국가를 대표하는 상위 소유권에 종속되었다. 그리하여 봉건제 하의 토지 소유자들-영주들-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지대를 수취하는 대신 상급 영주에게 일정한 의무도 부담하였다. 게다가 영주들의 토지 소유권은 직접 경작자인 농노들의 토지 점유권과 촌락 공동체의 공동권에 의해 제한을 받았다. 봉건제 하에서도 여러 가지 공적 성격을 갖는 경비는 토지로부터 조달되었다. 군주의 토지는 오늘날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공공 경비를 조달하였고 교회의 토지는 신자의 예배와 교화에 드는 비용, 병약자를 돌보는 비용, 성직자처럼 사회적 선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계층을 지원하는 비용 등을 조달하였다. 한편 군대의 토지는 국방비용을 조달하였다.⁷⁾

봉건제 이후 근대 문명은 토지의 공동 소유라는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관념을 뒤집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봉건제 하에서도 일정한 정도로 존속되고 있던 토지의 공동 소유와 그에 기초한 평등권은 각종 봉건적 속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함께 사라지고 말았으며, 그 이후 근대에 들어와서는 토지 사유의 관념이 개인적 자유의 신장과 함께 확대되어 갔다. 대부분의 토지는 사유화되었고, 한 때 하층민에게 독립성을 부여해 주었던 방대한 면적의 공동지는 별 가치 없는 땅에서나 겨우 흔적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군주, 교회, 군대의 토지도 개인의 소유로 바뀌고 말았다. 헨리

7) Henry George 저,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pp. 362-3.

조지는 이와 같이 토지 사유가 확대된 이유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영주에 의한 각종 속박을 내포한 봉건적 토지 소유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토지 사유제의 본질적 불의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근대 법이 로마법을 계승함으로써 토지 소유권과 다른 소유권간의 자연적 구분이 점차 사라졌다는 것이다.⁸⁾ 그런데 프레드 해리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토지의 사유화를 주도한 계층을 밝히고 있다.⁹⁾ 그에 의하면, 그들은 봉건제 하에서 공적 기능을 담당하던 사람들로써, 근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그들의 일이 전문화-상비군, 관료제, 순회 재판-됨으로써 그들의 숫자가 과잉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간파하고 재빠르게 토지 사유화에 나섰던 사람들이다. 해리슨은 이들의 행위를 공공의 지갑을 훔치는 일이자 "역사상 최대의 기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공공 수입의 원천이 사유화됨으로써 이제 공공 경비는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자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조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근대적 조세 제도는 바로 여기서 유래한다.

이제 경제학 이론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담 스미스는 토지 사유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현대 경제학-신고전학과 경제학¹⁰⁾-은 토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것을 옹호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사태의 발단은 바로 스미스 자신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는 지대가 독점 가격이자 불로 소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지주들에 대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어, 토지가 모든 주민들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었다면 이루어졌을 상태와 거의 똑 같이 생활 필수품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류의 증식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어처구니없이 높은 평가를 내리기까지 하였다. 또 그는 토지가치세가 우수한 조세임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토지의 가치에 과세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참으로 자가당착적

8) *Ibid.*, pp. 366-8.

9) Fred Harrison, *op. cit.* (1994), p. 182.

10) 케인즈 경제학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신고전파 경제학, 즉 신고전파 종합을 의미한다.

인 논리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스미스와 같은 뛰어난 학자가 실수로 이렇게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우리는 여기에는 과학적 탐구의 정신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개입되고 있다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제임스 밀(James Mill),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 고전학과 경제학자들과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도 지대 이론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고 토지 사유의 거시 경제적 영향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토지가치세의 부과에 반대하였는데,¹¹⁾ 이와 같은 전통은 바로 스미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이와 같은 스미스의 전통에서 훨씬 더 멀리 나아갔다. 20세기 초반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고전학파가 잘 정의했던 생산의 3 요소-토지, 노동, 자본-에서 토지를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토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자본에 융합시켜 버렸다. 오늘날 거의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2 요소 모형은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대 또한 독자적 범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자본에 대한 보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이렇게 토지와 지대가 독자적 범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자, 신고전과 경제학의 논의에서 토지 사유의 정당성이나 그것의 귀결-진보 속의 빈곤, 주기적 불황 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다.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의 사유가 정당하며 불가결한 것처럼 토지의 사유도 정당하며 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그렇지만 토지와 자본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는 생산된 것이 아니며 재생산 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자본은 생산된 것이며 재생산 가능한 것이다. 토지는 마모되거나 감가되지 않으며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는 일도 없고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자본은 마모되고 감가되며 신상품과의 경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는 일은 허다하며 특정 형태로 고착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토지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으나 자본의 공급은 가변적이다. 토지는 공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고 시간적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자본은 공간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시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토지는 위치라는 요인을 갖고 있기 때

11) Nicolaus Tideman, "The Economics of Efficient Taxes on Land", in Nicolaus Tideman, ed., Land and Taxation, London: Shephard-Walwyn, 1994에서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와 같은 경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문에 각 토지 단위가 그 사용자에게 동질적이지 않지만, 자본의 경우 그 사용자가 얼마든지 동질적인 단위들을 추가할 수 있다. 특정 단위의 토지는 다른 단위의 토지로 전환될 수 없지만, 특정 단위의 자본은 감가 상각 총당금의 적립을 통해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 토지는 경제 활동에 절대적으로 불가결하지만, 자본은 없어도 경제 활동이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토지의 가치는 경제적 기금이 아니지만, 자본의 가치는 경제적 기금이다. 그리고 양 가치를 결정하는 힘은 상이하하다. 마지막으로 토지와 자본은 상호 전환·교환이 아님·될 수가 없다.¹²⁾

이상과 같이 결코 융합시킬 수 없는 것을 융합시킴으로써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지주들의 이해를 유지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해를 상실하게 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경제가 변속할 때마다 항상 놀라움을 표시하며 전전공공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을 대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닐까?

III. 사회주의와 사이비 해방

1. 사회주의 실패의 요인

자본주의 체제는 무정부적인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는 믿을만한 장기적 안정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장기간에 걸친 성장의 기초 위에서 자유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을 주기적으로 중단시키는 경기과열과 파괴적 경기 침체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일일까? 산업혁명 이후 물질적 생산력이 실로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까지 보인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대도시에

12) Mason Gaffney, "Land as a Distinctive Factor of Production", in Nicolaus Tideman, ed., Land and Taxation, London: Shephard-Walwyn, 1994 참조.

가건 제3세계 국가 어디를 가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극심한 빈곤을 해결할 방법은 과연 존재하지 않는가?

지난 백 수십 년 간 마르크스주의는 바로 이 빈곤-그들은 단순한 빈곤보다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착취에 더 주목하기는 하지만-과 파괴적 경기 침체라는 두 가지 속박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와 사회를 구원할 유력한 해방자로 간주되어 왔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두 가지를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 모순의 대표적 증거라고 생각해 왔다. 시장과 자본-입노동 관계라는 내재적 모순의 담당자를 그냥 두고서는 해방이란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것을 파괴할 혁명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모든 사회에 내재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혁명의 객관적 조건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혁명의 주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순 속에서도 성장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

자본주의가 전복되고 난 후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과도적으로 성립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토지와 자본 등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교환경제를 폐지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보편적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지배는 계급 없는 사회를 성립시키고 결국 계급 지배의 수단인 국가를 소멸시킬 것이다. 생산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생산물의 분배는 처음(소위 사회주의 단계)에는 각 개인이 행하는 노동의 양에 따라 유통되지 않는 노동 증명서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나중의 보다 높은 단계(소위 공산주의 단계)에 가면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시장을 대신하는 중앙집권적 계획화는 공급과 수요의 완전한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낭비를 추방할 것이다. 그것은 또 기술 진보를 전 사회의 복지로 연결시킬 것이다. 계획화와 관리는 물건과 사람의 수를 세는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나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형태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담당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직접적 결합에 의해 행해지는 생산은 상품 교환 이전의 인간 관계의 특징이었던 우호성을 회복시킬 것이며 기술적 진보와 조직적 진보의 만개는 광범위한 풍요를 낳을 것이다. 착취와 소외에서 벗어난 각 개인은 외부로부터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회적 성격의 자발적 표현으로서 노동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해방을 맞보게 될 것이다.¹³⁾

13) Robert V. Andelson & James M. Dawsey 저, 기독교경제학연구원 역,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 CJP,

이와 같은 기대와는 정반대로 현실의 사회주의는 비효율성의 만연, 생산력의 저하, 생활 수준의 저하, 전체주의적 지배와 그로 인한 자유의 상실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자체 붕괴해 버렸다. 역사는 사회주의가 사이비 해방자였음을 증명한 셈이다.

사실 사회주의의 결합은 불세비키 혁명과 그후의 70년간의 고통스러운 실험을 거치지 않고서도 간단한 몇 가지의 질문만 가지고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질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예를 들어 아마추어들의 사회에서 기술 진보는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계획 입안자들은 물적·인적 자원의 배분에 관한 의사 결정을 무엇에 기초해서 해야 할 것인가? 중앙집권적 계획화는 마르크스가 말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원하는 대로’ 전직할 수 있는 자유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무엇이 초기의 독재가 굳어져서 자기 영속적인 과두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¹⁴⁾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결합이 시장과 자유방임체제에 있다고 보고 그것의 전면적 폐지를 통하여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는 당연히 계획 당국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계획 당국은 비용과 가격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원하고 얼마를 지불하려 하는가를 나타내는 부단한 밀고 당김이 이루어지는 자유시장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주의 하에서는 자원의 배분과 가격의 결정이 비경제적인, 흔히 정치적인 기준 또는 추측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제한적으로나마 자기의 삶에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용돈 정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의 임금 외에는 모든 소득을 일단 국가가 수취하였다. 토지와 자본의 집단적 소유가 이것을 뒷받침하였다. 그 다음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해 준다는 명목 하에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재화들-식량, 주택, 의약 등-을 인민들에게 ‘보조’하였다.¹⁵⁾ 사회주

1996, pp. 118-9.

14) *Ibid.*, p. 120.

15) 이것은 빈곤층을 위한 소득 재분배와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때의 보조는 보조받는 사람들

의 국가는 토지와 자본의 소유를 통하여 지대 소득과 이자 소득을 전유하였을 뿐 아니라 임금의 상당 부분을 수취함으로써 사실상 소득 분배의 전 과정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말살되고 경제적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민들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생산 할당량을 영웅적으로 채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결국 사회주의는 주어진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배경으로 한 도덕적 호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것의 효과는 빈약하였다. 사회주의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종종 약간의 사유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일정한 정도로 인정하는 소위 자본주의적 '불순물'들을 도입하였던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이상과 같이 사회주의에서는 자원 배분, 생산 목표의 결정, 소득 분배 등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국가 내지는 계획 당국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이것을 실제로 담당할 방대한 관료 기구가 필요하였다. 여기에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힘은 정치가의 손에 집중되고 이것은 새로운 특권 계급(nomenklatura)을 형성시켰다. 여기서는 비록 그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부패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과도한 힘을 제한할 길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들의 부패상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가 국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주체라고 일컬어지는 노동자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상실하였다. 노동자는 국가가 지정하는 직업을 받아들이고 국가가 부과하는 고용 조건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임금관계는 자본주의에서는 소외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선택을 배제하는 하나의 절대적 독재가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자들은 계급 없는 사회가 아니라, 많은 고용주들이나 자기 고용 중에서 선택할 권리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삶을 구상하고 직업을 선택할 기회, 요컨대 자유를 갈망하였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의 실패를 초래한 결정적 요인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공격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가 시장과 자본이 아니라 토지 사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못하고, 시장을 철폐하고 자본을 몰수하는 쪽으로 나갔던 것이다. 이것에 대해 일찍

이 헨리 조지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 적이 있다.

우리는 악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자들과 다르며, 처방책에서도 그들과 다르다. 우리는 자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노동의 자연스러운 보조물로 간주한다. 우리는 이자를 그 자체로서 자연스럽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본 축적에 아무런 제한도 가하고자 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똑 같이 부과되지 않는 부담을 부유한 자들에게 부과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결코 경쟁이 악하다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혈액의 자유로운 순환이 신체 조직에 필요한 것처럼, 제한되지 않은 경쟁은 산업 및 사회 조직이 견전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또 충분한 협동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한다.¹⁶⁾

2 사회주의적 토지개혁의 문제점

사회주의자들은 토지 사유와 지대의 사적 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을까?

마르크스 자신은 지대가 자본가의 이윤과는 달리 불로 소득이며, 또 그것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증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생산 그리고 따라서 가치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과 함께 발달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의 생산도 발달한다. 그러나 후자가 발달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토지소유는 토지의 독점을 통하여 이 잉여가치의 점점 증대하는 부분을 탈취하고 그에 따라 지대의 가치와 토지 그것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능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본가이다. 토지소유자는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증대하는 잉여생산물과 잉여가치의 일부를 탈취하기만 하면 된다.¹⁷⁾

더욱이 그는 “자본계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토지 소유권은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존재이며 해롭기까지 하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과 다르다”고

16) Robert V. Andelson, "Henry George and the Reconstruction of Capitalism",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52, No. 4, 1993, pp. 495-6에서 재인용.

17) K. 마르크스 저, 김수행 역, 『자본론』 제3권(하), 비봉출판사, 1991, p. 788.

하면서 토지 사유의 유해성을 명백히 지적하기도 했으며, “토지 독점은 자본 독점의 기초”라든지 “토지를 국유화하면 노동과 자본간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하며 공업 생산이건 농업 생산이건 간에 자본제적 생산형태로부터 이탈하게 된다”고까지 이야기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하의 토지 사유와 지주의 성격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치세를 통하여 토지 독점을 소멸시키고자 했던 헨리 조지의 처방에는 반대하였다. 그는 조지가 살리려고 했던 자유방임 자본주의-토지 독점을 소멸시킨 자본주의-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보기에 토지는 생산수단의 일부분이었고 지대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에 불과하였다.¹⁸⁾ 따라서 생산수단의 사유와 잉여가치의 생산을 그대로 두고서 부분적으로 토지 사유와 지대의 사적 전유만을 해결하는 것은 기만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토지 독점을 소멸시키고 지대를 사회적으로 수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조지와 동일하다. 조지와는 달리 마르크스가 제시했던 처방은 생산수단 국유화의 일환으로서의 토지 국유화였다.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마르크스의 이 처방을 따라 토지를 국유화하였다. 그런데 이 처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수반하였다.

첫째로,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토지도 최선 사용의 계산에 따라 최고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분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정치 권력에 따라 배분되었다. 그리하여 구 소련이나 중국 등의 경우 예컨대 공업 부문에는 토지를 과다 배분하고 주택 부문에는 과소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몇몇 사회주의 국가들-특히 아프리카의 경우-에서는 정치 권력과 결탁된 자들에게 유리하게 토지가 배분되는 경우가 허다했다.¹⁹⁾

둘째로, 토지의 시장가격-임대가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 입안자들은 아무 비용 없이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의 향상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로서 자연 자원을 사용해 왔다. 그들은 토지가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며 따라서 가치를 갖

18) 헨리 조지는 마르크스가 지대를 다른 생산요소의 대가와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잉여가치라는 용어 속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들어 그에게 “멍청이 나라의 왕자”(the Prince of muddleheads)라는 별명을 붙였다.(김운상, 「토지정책론」, 법문사, 1991, p. 308.)

19) William A. Doebele, “Land Use and Taxation Issu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H. James Brown, ed., Land Use and Taxation, Cambridge: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1997, p. 63.

지 않는다는 간단한 이유로, 토지와 자연 자원에 임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히 토지와 자연 자원은 낭비되지 않을 수 없었다. 투자의 패턴 또한 왜곡되었다. 토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모두 투자의 성과로 간주하면, 외연적 투자의 효과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내포적 투자의 효과는 낮게 나타난다. 계획 입안자들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계산을 근거로 외연적 투자에만 몰두하게 되었던 것이다. 초기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두드러진 성과는 투자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토지와 자연 자원의 엄청난 소모를 의미할 뿐이었다. 저렴하게 접근 또는 획득할 수 있는 토지와 자연 자원이 부족해지자 그와 같은 공업화는 금방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 사이에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상승은 지지부진하였고, 일민들의 생활 수준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개발되지 않았어야 할 토지나 자연 자원이 무분별하게 개발됨으로써 환경문제가 야기되었다.²⁰⁾ 이와 같은 투자 패턴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던 1988년,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다음과 같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생산물 한 단위 당 훨씬 많은 원료, 에너지, 기타 자원을 사용하였고, 또 사실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자연 자원과 인적 자원의 풍부함이 우리를 망쳤다. 아니 우리를 부패시켰다고 까지 말할 수도 있다. 사실 그것은 우리 경제가 수십 년 동안 외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이다. 생산의 양적 성장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 익숙한 우리는 성장률의 저하를 지지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주로 지출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에 의존하였다. 우리는 연료·에너지 산업을 조성하였고 생산에서의 자연 자원의 사용을 증가시켰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료 자원은 얻기 어려워지고 비싸졌다. (...) 그리하여 외연적 경제 발전의 타성은 경제적 정돈(停頓)과 침체로 이어졌다. (...) 한 가지 영터리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 세계 최대의 철강, 원료, 연료 및 에너지 생산국인 소련이 낭비적인 혹은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그것들이 부족한 상태에 빠졌다.²¹⁾

셋째로, 국가가 수취한 지대 부분은 대개 계획 경제의 비효율성을 보충하는 데

20) Fred Harrison, op. cit.(1983), pp. 176-7 및 Fred Harrison, "Post-socialism and the Single Tax: a holistic philosophy", in Richard Noyes ed., Now the Synthesis, London: Shepherd-Walwyn, 1991, pp. 82-3. 참조.

21) Ibid., p. 83에서 재인용.

허비되었으며, 나머지는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를 통제하는 관료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²²⁾ 국가가 지대를 결정할 경우, 그 지대가 토지의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토지 암시장을 형성시키고 일부 민간인들이 경제 지대와 국가에 납부하는 지대의 차액을 착복하는 일이 많았다.²³⁾

하여간 사회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토지제도를 구축해야 할 입장에 있다. 구 사회주의 국가 지도층이나 국민들의 정서는 토지 공유를 유지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체제 전환을 금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IMF나 세계은행, 그리고 많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서구 자본주의와 같은 토지 사유제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토지 공유를 유지하고자 했던 보리스 옐친이 1993년 10월 IMF의 압력에 굴복하여 토지의 사유, 저당, 매매를 규정한 토지법에 서명했던 일은 유명하다.²⁴⁾ 스스로도 토지 사유 때문에 체제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는 서구 자본주의가 자신의 고질병을 탈 사회주의 국가들에 수출하고자 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왼쪽 끝까지 갔던 시계추가 다시 돌아와서 중간에서 멎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시계추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전에 위에서 살펴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경제체제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

IV. 제3의 경제체제와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

1. 제3의 경제체제의 가능성과 토지가치세

흔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은 사유와 공유, 시장과 정부, 효율과 평등(혹은

22) Kris Feder, "Geo-economics", in Fred E. Foldvary, ed., *Beyond Neoclassical Economics*, Brookfield: Edward Elgar, 1996, p. 53.

23) Fred Harrison, op. cit.(1983), pp. 178-80.

24) Fred Harrison, op. cit.(1994), p. 218.

정의)의 대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격렬했던 만큼, 사유와 공유, 시장과 정부, 효율과 평등은 서로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래서 양 체제의 모순이 드러날 때마다 각각은 상대방 체제의 원리를 적당하게 도입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고자 해 왔다. 소위 혼합경제나 복지국가, 시장 사회주의 등은 그러한 노력의 소산이다. 구 사회주의 국가는 차치하고 오늘날의 자본주의 국가들을 보면 공유, 정부 개입, 평등의 추구 등 소위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혼합'은 노동, 자본, 토지(따라서 임금, 이자, 지대)의 차이나 사적 권리와 공동적 권리의 구별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적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혼합경제는 중도를 지향하기는 했지만, 양 체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중도 체제가 되지 못하고 단지 "잘못된 절충"(false compromise)²⁵⁾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아마도 미제스로 하여금 양 체제간의 가능한 절충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3의 체제란 없다고 주장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각 생산요소와 그 소득의 질적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사적 권리와 공동적 권리의 범주를 결정한다면, 양 체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경제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같은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120여 년 전에 헨리 조지에 의해 이미 충분히 전개되었던 것이다. 사회주의는 붕괴하고 자본주의는 유례없는 체제적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우리는 헨리 조지 이론에 입각한 제3의 경제체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나 케인즈와는 달리 헨리 조지는 자유 시장 경제를 확고하게 지지하였다. 그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고 관료제를 경멸했다. 흔히 오해되고 있듯이 그는 결코 무분별한 평등주의자가 아니었다. 그가 추구했던 유일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었다. 따라서 실제로 그가 의도했던 바는 자유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는 독점적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참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의 존엄성을 강하게 믿었고, 그것에 기초한 사유 재산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주장하였다. 이 존엄성에 기초해서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타인의 동일한 권

25) Kris Feder, *op. cit.*, p. 54.

리를 부정할 때에만 상실되는 권리-를 갖는다. 인간의 노동은 그 자신의 연장(extension)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는 자기 노동에 대한 권리, 나아가 자기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요컨대 조지는 노동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절대적 사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세, 특히 '지불 능력설'에 입각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와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노동 생산물에 부과된 공물이기 때문이며, 또 그것은 사회가 개인들에게 사회로부터 받는 편익과 무관하게 과세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조지는 오늘날의 시장 옹호론자들이라면 의심할 꿈도 꾸지 않을 많은 제도들-소득세, 관세, 판매세, 법인세, 개인 재산세 등-을 집산주의적이라 하여 거부하였다.²⁶⁾

그러나 조지는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토지-각종 자연 자원을 포함-에 대해서는 결코 사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에 대해서는 평등하게-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리고 모든 세대가-사용할 권리만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창출한 것에 대해서도 사유권은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사회가 취해야 한다. 토지 가치, 즉 지대는 토지의 자연력과 사회의 공동 산물이다. 따라서 그것은 개인이 전유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적으로 징수되어 공공 지출의 재원이 되어야 한다. 만일 사유화되어서는 안 되는 토지가 사유화되면, 노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연의 대가를 노동하지 않는 자가 취할 수 있게 되므로, 노동 생산물에 대한 생산자-자본가를 포함-의 권리가 그만큼 부정된다. 이것은 반드시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한다. 헨리 조지는 자신이 그토록 의아하게 생각했던 진보 속의 빈곤이 바로 이러한 토지 사유와 지대의 사적 전유에 기인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를 주기적으로 괴롭히는 불황과 대량 실업이 다른 아닌 토지의 투기에 기인한다는 것을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밝혀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국가가 개인의 근면과 창의성에 벌금을 물리고 개인이 생산하는 것의 일부를 빼앗아가면서도, 비생산자에게는 사회가 생산하는 황재물을 아낌없이 허용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²⁷⁾ 이에 대한 헨

26) 이상 세 문단은 Robert V. Andelson, op. cit., pp. 495-6을 정리한 것이다.

27) Ibid., pp. 497-8.

리 조지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생산하는 것을 모두 갖게 하고, 사회로 하여금 그것이 생산하는 것을 모두 갖게 하라.”²⁸⁾ 헨리 조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은 간단하다. 그것은 토지를 공유로 하든지, 아니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공적으로 징수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토지를 공유로 한다는 것은 구 사회주의의 경우와는 달리 토지개량물에 대한 사적 권리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조건 하에 각 필지마다 최고가격 청약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토지가치를 공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몰수적 성격을 갖는 모든 조세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는 이미 토지 사유제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의 방식은 필요 이상의 충격을 야기하고 정부 기구를 쓸데없이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반대한다. 이 때에는 토지가치를 전액 징수하는 단순하고 쉽고 조용한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면, 토지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건 토지 소유량이 얼마이건 간에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가 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토지 공유가 지배적인 상태에 있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굳이 토지 사유제를 거쳐서 토지가치세제를 확립하는 것보다는 바로 전자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것은 사유와 공유의, 그리고 시장과 계획의 무원칙적인 절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양 범주가 갖는 순수성이 유지되고 또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시장은 토지 사유의 질곡을 벗어버리고(자본주의)-또는 무능하고 난폭한 계획 기구를 대신하여(사회주의)-자유롭게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 몰수적 조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는(자본주의)-또는 자신이 생산한 부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게 된(사회주의)-노동자와 자본가들은 전에 없던 의욕과 창의성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여 갈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사적 권리와 공동적 권리, 그리고 효율과 평등을 조화시킨 진정한 제 3의 경제체제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여기서 잠시 토지가치세의 효과를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자.

첫째, 토지가치세는 한편으로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각종 조세를 없애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 독점과 토지 투기의 억제를 통해 토지의 생산적 이용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생산을 증대시킨다. 토지 투기가 억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괴롭혀 온 주기적 불황 또한 사라지게 된다.

28) Ibid., pp. 498.에서 재인용.

둘째, 토지가치세는 자본주의하에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온 지대의 사회적 전유와 토지 투기를 봉쇄함으로써 임금과 이자의 절대적 저하를 막고 소득 분배의 평등화를 촉진한다. 공적으로 수취되는 지대는 공공 편익의 형태로 평등하게 분배된다. 이러한 평등의 촉진은 사회 도처에서 낭비를 제거하고 노동 능률을 제고함으로써 다시 생산을 증대시키게 된다.

셋째, 토지가치세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각종 조세 관련 기능을 불필요하게 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으로 인한 각종 사회악을 감소시켜 관련 정부 기능을 축소함으로써 정부를 간소화시킨다. 반면 정부 재정은 물질적 진보에 따른 지대의 증가에 힘입어 자동적으로 풍부해진다. 나아가 토지가치세는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해방함으로써 인간의 선한 본성을 발휘시키고 이를 기초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토지가치세는 토지의 유희화를 억제함으로써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환경 파괴를 방지한다. 토지가치세가 환경 파괴를 방지하는 이유는 그것에 의해 토지 투기가 억제됨으로써 한계지가 계속하여 확대되는 현상이 사라질 것이며,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그 이익만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그 전처럼 마음대로 환경을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⁹⁾

이상의 효과는 토지가치세제가 자본주의의 이상인 효율과 사회주의의 이상인 평등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킬 뿐 아니라, 생태계의 유지 가능성까지 구현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의 정신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과연 토지가치세-구 사회주의의 경우 토지 임대료-가 공공 경비를 모두 조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소위 '토지가치세의 세입 충분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문제는 메이슨 개프니 교수를 비롯한 조지스트 학자들에 의해 실증적으로 해명되었다. 그들은 현행 조세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가치세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공공 수입은 국민소득의 3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⁰⁾ 그 정도의 액수라면 전체 공공 경비를 조달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9) 이것은 토지가치세의 원리를 여타 자연 환경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30) 이와 같은 추정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Mason Gaffney, "Adequacy of Land as a Tax Base", in Daniel M. Holland ed., *The Assessment of Land Valu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0을

더욱이 토지가치세제 하에서는 기존의 국가 기능이 많이 축소되어 공공 경비가 감소할 것이고, 민간 부문이 공급하기 곤란한 특수한 서비스에 대해 징수되는 사용료³¹⁾ 수입과 특수한 사회적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수입이 토지가치세 수입에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세입 충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토지가치세제는 세계 각처에서 실시되어 왔다.³²⁾ 뉴질랜드와 호주, 덴마크, 대만,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의 여러 도시들과 캘리포니아 주의 관개 구역, 자메이카의 일부 지역, 서부 캐나다의 일부 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직접적인 토지가치세제는 아니지만 장기 임대 방식을 통해 토지문제를 해결하였다. 토지가치세제를 실시한 정도와 그것을 상쇄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두드러진 경제적 부흥을 경험하였다.

호주의 사례는 토지가치세의 효과를 입증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 준다. 호주에서는 토지가치세제가 1878년에 소규모로 시행된 이래 19세기말에 확립되었다. 헨리 조지의 글과 1890년 그의 3개월간의 강연 여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세기에 걸쳐 토지가치세를 실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한 조사에 의하면, 전자에서는 경작 면적이 확대되었던 반면, 후자에서는 그것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개량물 가치의 비율은 전자에서는 151%였던 반면, 후자에서는 79%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전자에서 건설이 그만큼 활발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최대 비율의 지대를 징수한 퀸스랜드(Queensland)에서 198%로서 가장 높았다. 또 임금, 구매력, 소매 판매량, 공장에서의 자본 투자, 주택 건설, 금융기관과 협동조합의 자산 등 많은 지표에 있어서도 후자보다 전자가 훨씬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후자에서부터 전자로 인구가 이동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조세가 생산보다는 토지가치의 증가에 부과되는 곳에서 더 나은 기회를 발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역시 퀸스랜드로의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다.

그 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시드니(Sydney)와 멜버른(Melbourne)을 비교하고

들 수 있다.

31) 이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부과된다.

32) 이하의 사례는 Robert V. Andelson & James M. Dawsey 저, *기독교경제학연구회 역, op. cit., pp.*

179-84.를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있는데, 시드니의 경우 무거운 토지가치세 덕분에 도시 중심에 집중적으로 민간 부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토지 투기가 억제되어 건전한 공공 수입 기반이 마련되었던 반면, 토지가치세가 시행되지 않은 멜버른의 경우 점적은 듯한 성장 형태를 보이고 상업 구역이 교외의 상업과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위의 조사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2. 구 사회주의권의 토지제도 개혁의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하에서 토지가치세의 효과는 명백하다. 그렇다면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토지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가야 할 것인가?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모색해 두어야 할 것이다.

1996년 5월 30일자 「뉴스플러스」에는 ‘북한 땅 문서가 나돈다’는 특종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 출신 실향민들이 땅 문서를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서가 없는 사람들은 동향 사람들끼리 옛 소유권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만들기도 한다고 한다. 심지어 북한 땅 문서가 매매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통일이 되면 외부적으로 IMF나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토지 사유화의 압력이 들어오겠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도 토지 사유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구 동독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다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구 동독 지역을 구 서독인들의 부동산 사냥의 황금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한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재산권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독일 정부는 토지 반환 원칙을 실패한 3대 통일 정책 중의 하나로 꼽기에 이르렀다.

1990년 윌리엄 비크리(William Vickrey), 메이슨 개프니(Mason Gaffney), 니콜라우스 티드먼(Nicolaus Tideman) 등 미국의 조지스트 경제학자들은 프랑코 모딜리아니(Franco Modigliani), 로버트 솔로우(Robert Solow), 제임스 토빈(James Tobin)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³³⁾들을 포함하는 27명의 경제학자들과 함께 구 소련 대통

33) 비크리를 포함하면 4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이 편지에 서명한 셈이다.

령 고르바초프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³⁴⁾ 이 편지에서 그들은 소련이 대부분의 지대가 사적으로 수취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갈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하면서 지대를 사회적으로 수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국유 토지를 민간에 불하하는 방법으로는 지대의 사회적 수취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방법은 토지 공유제를 유지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앞에서 헨리 조지가 토지 사유가 확립되어 있는 자본주의에서는 필요 이상의 충격을 야기하고 정부 기구를 쓸데없이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서 지나친 방법³⁵⁾이라고 평가했던 바로 그것이다.

토지 공유제 하에서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일은 사회주의 하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그것과 방금 이야기한 방식과의 차이는 토지 가치, 즉 임대료 결정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임대료의 결정이 전적으로 계획 당국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임대료는 실제의 토지 가치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임대료의 결정이 경매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그 임대료는 토지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게 된다. 토지의 사용권은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서 토지는 최선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은 사회주의에서처럼 관료들이 부패하여 특별히 특정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될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 민간에 토지 판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그와 같은 곳에서는 경매장이 사실상 각 지방의 토지 시장이 된다. 이 이상적인 시장에서는 패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승자들의 입찰 가격이 국고로 들어가서 공공 경비에 충당되고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에 의해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매 제도는 윈-윈(win-win) 제도라고 할 수 있다.³⁶⁾

헨리 조지는 이 토지임대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사

34) Nicolaus Tideman et al., "Open Letter to Mikhail Gorbachev", in Richard Noyes ed., op. cit. pp. 225-30.

35) 헨리 조지의 이러한 우려는 이미 토지 공유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토지 사유제를 도입하고 그 위에 토지가치세제를 실시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나친 방법이 될 것이다.

36) Fred Harrison, op. cit.(1991), pp. 87-8.

각에 입각하여 그 효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임대제는 탈 사회주의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과 이자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던 토지가 최선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생산을 증대시킬 것이다.

둘째, 토지임대제는 시장을 전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던 계산의 오류를 극복할 것이다. 토지에는 임대가가 부여될 것이고, 따라서 토지와 자연 자원의 낭비에 기초한 잘못된 성장 패턴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며, 무분별한 환경 파괴 또한 억제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의 부재에 편승한 각종 부정과 부패도 사라질 것이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구 사회주의 사회에는 토지의 암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계산의 오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토지임대제의 도입이 이 같은 토지 암시장을 소멸시킬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셋째, 토지임대제는 토지가치세제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구를 간소화시킬 것이다. 계획의 입안, 집행, 감독을 위해 설치되었던 기존의 방대한 관료 기구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새로이 조세 제도를 관리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단지 토지 사용권의 경매를 관리할 기구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관료 기구나 자본주의하의 정부 기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사회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주의 하의 인민들을 사로잡고 있던 비효율과 비능률은 점차 사라질 것이며, 사회는 새로운 발전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탈 사회주의 국가들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에 매우 좋은 상태에 있다. 사회주의 시절부터 줄곧 정치 권력을 장악해 온 구 공산당 관료들은 토지 공유가 그들의 이해에 보다 유리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오랫동안의 사회주의 경험으로 인해 토지는 특수한 재산이며 공유로 두어야 한다는 도덕적·지적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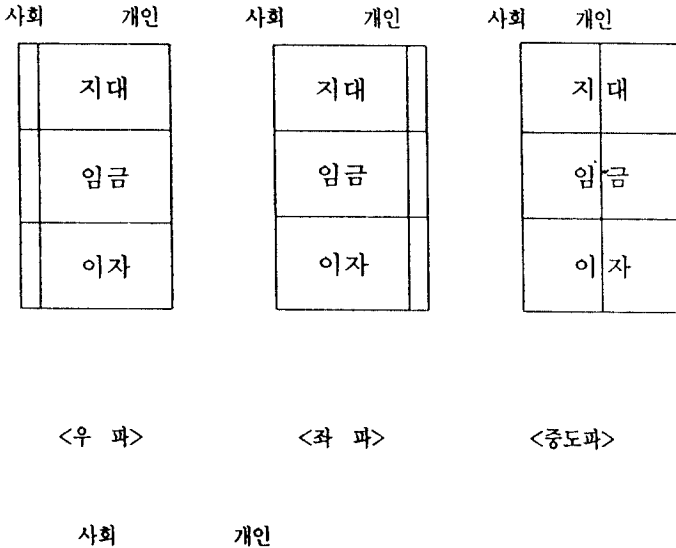
최근의 북한의 식량 위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회주의의 문제점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폭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의 경제 위기 또한 우리가

37) William A. Doebele, *op. cit.*, p.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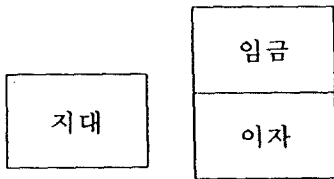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폭발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남북한 공히 조지스트들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토지 제도를 개혁할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V. 맺음말

필자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Henry George Institute의 인터넷 강좌³⁸⁾로부터 본 논문의 취지를 잘 요약해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림과 해설을 찾을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그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38) 이 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www.henrygeorge.org이며, 강좌 명은 "Beyond Left and Right"이다.



<조지스트>

먼저 우파(right-wing)는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보다 많은 부가 민간의 수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대, 임금, 이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나 정부는 교통 경찰관의 역할처럼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담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좌파(left-wing)는 사회로 하여금 대부분의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정의-혹은 평등-을 달성하도록 촉구한다. 그들도 우파와 마찬가지로 지대, 임금, 이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여기서 개인들은 부의 극히 작은 부분만을 통제할 뿐이다.

중도파(middle-of-the-road)는 개인과 사회간에 부와 권력을 분배함에 있어서 균형을 추구한다. 그러나 노력 소득(earned income 임금 및 이자)과 불로 소득(지대)의 구분이 불충분하며 개인과 사회에 각각 돌아갈 부의 경계가 자의적으로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조지스트들은 불로 소득과 노력 소득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위의 모든 이데올로기와 다르다. 지대는 사회로 돌아가고 임금과 이자는 개인에게 돌아간다. 조지스트의 제안은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서도 좌파의 목표를 달성하며, 특권과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서도 우파의 목표인 자유를 달성한다. 그리고 자의적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중도파가 추구하는 균형 체제를 달성한다.

참고문헌

- Fred Harrison, *The Power in the Land*, New York: Universe Books, 1983.
- Fred Harrison, "Post-socialism and the Single Tax: a holistic philosophy", in Richard Noyes ed., *Now the Synthesis*, London: Shephard-Walwyn, 1991.
- Fred Harrison, "The Georgist Paradigm", in Mason Gaffney & Fred Harrison eds., *The Corruption of Economics*, London: Shephard-Walwyn, 1994.
- Kris Feder, "Geo-economics", in Fred E. Foldvary, ed., *Beyond Neoclassical Economics*, Brookfield: Edward Elgar, 1996.
- Mason Gaffney, "Land as a Distinctive Factor of Production", in Nicolaus Tideman, ed., *Land and Taxation*, London: Shephard-Walwyn, 1994.
- Nicolaus Tideman, "The Economics of Efficient Taxes on Land", in Nicolaus Tideman, ed., *Land and Taxation*, London: Shephard-Walwyn, 1994.
- Nicolaus Tideman et. al., "Open Letter to Mikhail Gorbachev", in Richard Noyes ed., *Now the Synthesis*, London: Shephard-Walwyn, 1991.
- Robert V. Andelson, "Henry George and the Reconstruction of Capitalism",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52, No. 4, 1993.
- William A. Doebele, "Land Use and Taxation Issu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H. James Brown, ed., *Land Use and Taxation*, Cambridge: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1997.
- Henry George 저, 김운상 역,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 Karl Marx 저, 김수행 역, 「자본론」 제3권(하), 비봉출판사, 1991.
- Robert V. Andelson & James M. Dawsey 저, 기독교경제학연구회 역,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 CUP, 1996.
- 김운상, 「토지정책론」, 법문사, 1991.
- 이정전, 「토지경제론」, 박영사, 1995.
- 이풍, '통일과 토지: 제3의 중도 체제는 있다', 「제6회 성경적 토지학교 자료집」, 1997.
- 전강수, '헨리 조지 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의 농지개혁', 「통합연구」 29, 1996.
- 동아일보사, 「뉴스플러스」, 1996. 5. 30.